

<말씀> 출20:14

<설교요약>

1. 결혼 전 모든 육체적 관계는 죄요, 결혼 후 부부 관계 외 육체적 관계 역시 죄입니다.

7계명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의 풍기문란 썸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1차적 방향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적인 것과 부부 결혼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즐기는 것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이 세대의 혼란한 가치에 물든 것입니다. (롬12:2) 요즘 시대 ‘혼전순결’을 이야기 하면 조롱을 받습니다. ‘감각이 떨어진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골동품으로 취급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창 2:24) 모든 육체적 관계에 있어 부부를 떠나 하는 모든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결혼 전 모든 육체적 관계는 죄입니다. 결혼 후 부부 관계 외 모든 육체적 관계 역시 죄입니다. 간음에 대해서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레 20장) 왜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는 목숨 걸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1. 본문에 기록된 7계명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롬12:2)

2. 결혼은 누구와 누가 하는 것입니까?(창 2:24) 요즘 시대에 범람하는 잘못된 부부의 개념(동성애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시다.

2. 7계명을 주신 이유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을 함께 만드셨습니다. 결혼을 통해 자손을 번성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성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죄’가 틈을 타고 들어와 망가진 것이요, 죄악으로 변진 것입니다. 간통제가 위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너무 단선적으로 판단한 듯합니다. 가족의 핵심적 관계는 부부에 있습니다. 1853년 알제리에서 평범한 미국시민이 죽었습니다. 30년 후 뉴욕항구에 개항이후 최대인파들이 모여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그는 ‘홈 스위트 홈’을 지은 ‘존 하워드 페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산업혁명으로 고도성장을 이룰 때였습니다. 돈은 많았던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게 되고 가정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정에 대한 향수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노래가 만들어졌고, 많이 불리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가 혼란해 있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보루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3. 성(性)을 만드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결혼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4. 가치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가정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가정의 핵심을 붙들기 위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3. 7계명을 주신 다른 이유는 구속적인 그림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결혼관습을 보면 2번의 결혼식이 올려 지게 됩니다. 신부의 집에서 정혼(약혼)을 합니다. 정혼은 법적 구속력이 있고,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계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후 신랑은 자기 집 으로 돌아가 1년 남짓한 시간에 신부는 신부수업을 하게 되고, 신랑은 집을 짓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마 1:18) 그런데 아내 배가 불러 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비로움을 가지고 가만히 꿇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순결을 통하여 참 하나님이신, 참 인간이신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십니다. 우리의 구속 완성은 예수님의 신랑 됨,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잘 지켜야 할 가치 중 ‘서로를 향한 정절’ 만큼 지켜야 할 가치는 없습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부부란 단위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7계명은 가정보호와 동시에 순결한 가정을 통한 메시아 구속을 설명합니다. 이 메시지는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죄는 맞서 싸워 이길 죄가 아닌 피해야 할 죄입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 환경을 피하고 말씀을 새김에 있습니다.(시119:9)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정절을 지키고, 순종하고, 버티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5. 유대 관습에 있어 결혼은 몇 번 드려지게 됩니까?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속사적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 되어져야 할까요?

6. 간음이란 죄는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길수 있는 죄인가요? 이 죄를 이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주간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한 지혜를 삶으로 체화시키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나눠봅시다.

***기도:**

영혼을 맡은 자로서 주 앞에 신실하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해 주소서